

전교생이 그림책 작가! 특별한 출판사 '곡성 삼기초'



학생 33명이 1권씩 그림책 출간 출판기념회 열고 출판사와 정식 계약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 진행 성과

“좋아해서요.”
이유가 간단했다. 11월 8일 오전, 곡성 삼기초에서는 신진 작가들의 출판기념회가 한창이었다. 작가는 33명의 삼기초 학생들이었다. 어른들이 책을 쓴 이유를 물으면 아이들은 ‘당연한 걸 묻네’ 하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게임이 재밌어서요.” “꽃을 좋아해서요.” “학교가 즐거워서요.” 대상은 달랐지만 저자 의도

가 너무 분명해서 책 내용도 선명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마음이 행복해졌다.
“다 읽어 보고 싶는데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해요. 아이들의 기발한 생각들이 녹아 있는 책들이 많으니 천천히 둘러보고 가세요.” 4학년 꼬마 작가의 어머니, 박성연 씨는 아쉬워하며 길게 전시된 책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학생들의 기발한 상상력에 반

한 이는 또 있었다. 출판사가 ‘비위약한 도마’의 저자 김승찬 군과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은 것. “매일 음식을 자를 때 쓰였던 도마가 실상 비위가 약한 아이일 것이라는 발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저희 작가들도 승찬 군의 상상력에 반했죠.” 작가의 탄생 김용환 대표가 말했다. “비위 약한 도마가 시중에 나오면 많은 사람이 읽고 웃어주었으면 좋겠어요”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삼기초는 올해 동화작가 윤미경 씨와 ‘나도 작가되기’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다. 출판기념회는 1년 간 쓰고 그린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꼬마 작가들은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자신의 그림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소개하고 저자 사인회도 가졌다. 정성스럽게 사인한 책들은 지역 도서관에 기증되었다.

삼기초는 특색교육으로 3년째 책 만들기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 키운 수박 이야기가 담긴 수박 그림책과 동시집 ‘시는 언제나 내 편이야’를 발간했다. 학교가 꼬마 작가들의 요람인 셈.

“책을 만들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대화의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학년 담임이자 동화작가인 김점선 교사가

말했다. “스토리가 절반 이상 왔는데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엮기도 하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펜 놓는 학생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막상 출판되니까 못하겠다고 한 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마냥 순탄치는 않았지만 학생도 교사도 성취감은 확실하다고.

도시에서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양희재 학생(2학년)은 그의 책 ‘신기한 학교에 전학왔다’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맺었다. ‘오늘은 참 재미있었다.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작지만 특별한 곡성 삼기초로 다시 학교 가고 싶다.

조현아(홍보담당관실)

교육뉴스 · 02-03

확 바뀌는 전남 교실, 배움중심 수업 ‘활짝’ 혁신의 원동력은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발성 고취, 학교 예술교육이 마을을 품다 요즘 곡성 ‘인싸’는 책쓰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생현장 · 04-05

낙안초, 학교 안 쉼터 직접 만들었어요
장성중앙초 학부모회, 학창시절로 고고! 구례여중, 구례사랑 프로젝트 수업
발레 배울 어린이, 강진 작전초로 오세요

더불어삶 · 06-07

문태고, 노동초, 나주고 연탄 나눔
광양하이텍고 ‘푸른비전’ 여성가족부 장관상
진원동초, 장흥관산중, 사랑의 김장김치
영어선생님들의 영어수업 기부 ‘훈훈’



의회소식 · 08

전남도의회, 대입지원 나섰다!

꿈을 키우는 전남교육 · 09

여수고 기다슬,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전남 국어 선생님들, 수업 개선 ‘오졌다’

전남교육책방 · 10

전남교육청, 전남지역사 교육자료 개발
목포미향초 교사 독서토론동아리, 인성교육동화 발간
<책 이야기> 성장을 위한 사색

참여마당 · 11

<교단에서> 미래 필수 능력 기르는, 감성수업
나미연(광양마동초 수석교사)

<우리들이야기> 모든 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한이(화원초 학생)

특집 · 12

사진으로 보는 2020 수능

“걱정마, 잘 될거야”



확 바뀌는 전남 교실, 배움중심 수업 ‘활짝’

도교육청, 2020 전남수업혁신 종합계획 마련 일방 지식전달 탈피, 학생-교사 협력적 수업 실현

“선생님들이 모든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어서 수업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고흥동초등학교 5학년 송하영 학생은 요즘 학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수업시간이 재미있어서다. 예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 적기만 해 수업이 딱딱하고 지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친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생각을 모아 해답을 찾는다. 선생님들도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배운다.

이처럼 전남 도내 각급 학교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배움중심’으로 확 바뀌고 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던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 함께 지적 성장을 이루는 협력적 수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즉, 배움중심 수업이란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로서 참여해 실제 삶 속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자발적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말한다.

전남교육청이 내년엔 배움중심 수업을 더욱 확산하고 정착시킬 예정이다. ‘2020 전남수업혁신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전문

적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활동 중심 지원 체제 구축의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첫째,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 보장과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문해력 및 수해력 의무 연수를 실시하고, 시 단위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특히, 말이 살아있는 토의·토론 교실문화를 만들고, 교육과정 속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통해 독서·토론·글쓰기 능력을 길러준다는 계획이다.

둘째,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실천함으로써, 배움중심 수업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배움중심 수업 설계 △배울 권리 보장 △배움을 확인하고 지원 등에 나서줄 것을 제시했다. 또,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학습목표 설정해 배움활동에 참여하기 △친구 의견 존중해 협력하며 배우기 △알게 된 내용을 자기 언어로 정리하기 등 세 가지 배움 약속을 지킬 것을 제안했다.

셋째,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의 협력적 배움을 꾀한다. 올해 전남의 교사들은 가르치는 역할을 뛰어넘어 함



**자기주도 학습력 강화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교육활동 중심 지원 체제 구축**

게 성장하는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전남 전체 교원의 70%에 달하는 1만 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 별량초 문철민 교사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수업혁신이다”고 말했다.

넷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

축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에 나서고, 올해 10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시범 구축한 학교지원센터를 2020년에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함으로써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또,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수업나눔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배움중심 수업의 조기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배움중심 수업을 최대한 많은 학교에 확산하고, 2020년 정착기를 거쳐 2021년에는 전남형미래학교와 연계해 학교 현장에 일반화 할 계획이다.

이영향(정책기획관)

“민주적 의사 결정과 자발성이 혁신 원동력”

전남교육청, 혁신유치원 운영 2020 유치원혁신 전면화 나서

전남교육청이 유치원 혁신 전면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1월 13일 곡성 미래교육 협력관에서 혁신중심 유치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유치원 혁신과 내적 성장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교사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함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곡성유치원, 라온유치원, 비봉유치원, 고흥푸른꿈유치원 등 혁신유치원 4곳과 자율혁신유치원 13곳, 일반유치원 교직원 등 110여 명이 참석



했다.

컨퍼런스에서 교직원들은 혁신유치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례를 공유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라온유치원 이미애 원장은 “교직원의 힘은 교사의 자발성에 있었다”며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사 자발성을 이끌어 내었다고 평가했다.

동 유치원 김교회 교사는 “동료 선생님들 간 서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돈독한 유대 관계 속에서 얻은 힘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되돌아갔다”고 덧붙였다.

곡성유치원 허정원 교사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협의 문화를 형성했다. 원장, 원감, 교사들은 수업 연구주제, 교육과정과 유치원 운영전반을 협의하며 진행했다”며, “이런 과정들에 참여하며 교사들은 주도적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고흥푸른꿈유치원 윤민영 교사는 “올해 우리 유치원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는데, 내년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원아들과 교직원들의 힘을 모아 공간혁신을 이뤄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미선(혁신교육과)

공영형 사립학교 영암여고 첫 지정

최근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영암여자고등학교’를 ‘공영형 사립학교’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했다.

공영형 사립학교는 전남교육청 ‘사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계획’의 13개 과제 중 핵심사업이다. 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2인 이상의 이사를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를 도교육청에 위탁해 선발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이 지정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영암여고’에 앞으로 4년간 대규모 시설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를 감면하고,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순형(학교지원과)

농촌·농업 체험교육 인프라 확대

전남교육청이 11월 8일 농촌·농업 체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남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원격화상교육시스템 설치, 스쿨팜 생태교육,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행복 채움 금융교실 운영, 문화체험 기회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농촌·농업 체험교육 인식 확산 등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육관(미래인재과)

전남 직업계고 학생 창업역량 키운다

창업전문기관과 손잡고 지원 강화

전남교육청이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의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쌓고 있다.

도교육청은 11월 8일 직업계고 학생

들의 전공 기술과 창의성을 접목한 아이템 개발과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와 창업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했다. 캠프에는 도내 직업계고 고등학교 창업동아리 27개 팀 100여 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캠프를 통해,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의 동향, 기술변화, 제품 트렌드, 고객니즈 등을 분석해 창업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을 솔루션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한 창업동아리와 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을 맺어 학생들의 열정을 북돋웠다. 더불어 지난 10월에 진행된 창업아이템발표대회 입상작 15개에 대해 특허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수(미래인재과)

고흥, 학교 예술교육이 마을을 품다

고흥예술교사연구회 교사들 뭉쳐
예술교육으로 지역과 학교 연계
2년째 고흥예술교육축제 열려



고흥 과역면 참살이조가비촌 공원이 지역 학생들의 축제장이자 전시마당이 되었다. 공원 곳곳에는 학생들이 디자인한 벤치가 설치되고 오솔길엔 바다화가 그려졌다. 한 칸에선 신명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이 펼쳐졌고, 관악중주, 핸드벨, 오카리나, 통기타, 우쿠렐레, 하모니카 연주와 합창 공연이 뒤이어 이어졌다. 뮤직비디오도 상영되었다. 과역 오일장의 모습과 고흥 사람들의 삶이 담긴 영상이었다.

지난 11월 5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이 조가비촌 공원 일대에서 연 ‘고흥예술교육축제, 과역 프로젝트 수업’을 열었다. 프로젝트는 공공미술 벤치 제작 및 설치, 버스킹 공연, 뮤직비디오 제작, 인도에 바다화 그리기 활동으로 진행됐다.

‘과역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마을을 무대 삼고 지역민을 관객 삼아 예술교육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사랑과 예술 감성을 북돋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작년 ‘연홍도 프로젝트’에 이어 두 번째다. 고흥예술교사연구회(중등 음악·미술 교사 16명)와 11개 중·고등학교 100여명 학생들이 주도하여 추진됐다.

벤치 제작에 참여한 동강중 김정민 학생은 “내 작품이 우리 지역 공원에 전시

되어 뿌듯하다. 작품구상, 설계, 제작과정이 힘들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힘들었던 과정보다 훨씬 행복감이 크다”고 소감을 말했다.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소감이 이어지자 “학생들의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이어져 살아 숨 쉬는 교육활동이 됐다”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용은 고흥도덕중 교사가 자신했다.

과역 프로젝트를 주도한 고흥예술교사연구회는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로서

매월 두 번씩 만나 교육과정 재구성, 자체 연수 등을 실시했다. 또 학교별로 역할을 맡아 교사와 아이들은 단위학교 수업에서 축제를 준비했다.

정길주 교육장은 “고흥 예술교육이 지역민과 마을을 품었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훌륭한 수업이었다”며 “앞으로도 마을연계 교육활동을 더욱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병호(고흥교육지원청)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요즘말

요즘 곡성 ‘인싸*’는 책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

입면 어르신들 그림책 발간

곡성 어르신들이 책에 삶을 녹이고 있어 화제다. ‘시인할매’로 잘 알려진 서봉마을 어르신들에 이어 이번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그림책을 발간한 것.

곡성교육문화회관(관장 서용진)이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한 해 ‘함께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글을 모아 ‘추억으로 그려보

는 인생 그림책!’을 발간하고, 입면 길작은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길작은도서관은 5월부터 9월까지 입면 지역 주민 20여 명과 그림책 함께 읽고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다른 사람 글 읽고 소감 발표하기 등의 과정을 추진했다. 또한 입면에서 시집을 출판해 화제가 된 ‘시인할매’들을 초빙해 ‘할매’들의 시를 토대로 인형극을 제작하고 초·중학교를 찾아가 북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은 힘든 일상에



서 잠시 벗어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문학적 기쁨을 만끽했다. 덕분에 입면 주민 10명이 각자의 삶이 담긴 그림책을 출간했다.

책을 출간한 윤금순 어르신은 “책을 만

들어보는 건 처음이었다. 농번기라 바빠지만 수업 시간에 안 빠지려고 노력했는데, 책도 나오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초(곡성교육문화회관)

함평교육지원청, “사람 책과 미래 그려요”

지역 내 직업인 4명 초청해
실제 직업 이야기·체험 나뉨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이 11월 4일 함평해보중학교에서 ‘사람책(휴먼라이브러리)과 함께 미래를 그려봐요’라는 주제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열었

다. 이번 행사는 함평 관내 직업인을 초청해 중학생들에게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대한 함평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함평나비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드론·팝아트·조향·태권도 등 네 분야의 직업인들을 초청했다. 직업인들은 직업을 갖게 된 개인적인 경

험을 이야기하고, 각각의 일을 체험하도록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동네에서 드론으로 농작물에 약치는 것을 보긴 했지만, 이렇게 직접 드론을 조작해보니 더 관심이 생겼다.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함평교육지원청은 마을학교와 연계해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매칭하며 함평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김은주(함평교육지원청)

나주도서관 필우회 회원
소치미술대전 다수 입선

나주공공도서관(관장 이혁신)은 제 15회 대한민국소치미술대전에서 서예 동아리 ‘필우회’ 회원들이 다수 입상했다. 특별상에 정수인 회원, 특선에 강수일 회원 등 5명, 입선에 2명, 총 8명이 입상하였다. 소치미술대전은 조선 말기 남종화대가 소치 허련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대회다.

목포도서관 한마음연합봉사단
환경정화 봉사활동

목포공공도서관(관장 오철록) 한마음연합봉사단원과 도서관 직원 100여 명은 11월 9일 목포 북항과 고하도에 위치한 케이블카 탑승장 일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마음연합봉사단은 지난 5월 발대식을 갖고 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익힌 재능을 매주 복지시설을 찾아 나누고 있다.

학교 환경 개선, 손 보태드립니다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지원단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길훈) 학교지원센터가 11월 5일 황전초 회덕분교장에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활

동을 했다. 분교장의 취약한 소방·전기 분야를 점검하고 수목을 전정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학교지원센터 구축과 함께 ‘학교시설 긴급지원단’을 꾸리고, 순천 관내 시설관리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했다. 지원단은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와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현대화 장비가 설치된 학교의 시설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순천에는 시설관리직 미배치교 16교가 있으며, 지원단은 12월까지 시설관리직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시설관리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미란(순천교육지원청)



“학교 안 쉼터 직접 만들었어요”

낙안초, 마을학교 운영
학교 내 공간 혁신
학생, 학부모, 주민 참여

뚝뚝뚝, 썩썩썩. 목장갑을 낀 아이들 손이 분주했다. 연필과 책 대신 톱과 사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사뭇 낯설다.

낙안초등학교(교장 오미숙) 학생들은 지난 11월 학교 쉼터를 만들었다. 운동장 나무 그늘, 잔디밭 위, 등나무 아래 등 학교 곳곳에 포근한 쉼터를 만들기로 기획한 것. 학생들은 어떤 쉼터가 필요한지 협의해 제작했다. 필요한 물건을 정하고,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재단하고 조립하고 다듬고 칠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했다.

학생들은 공간에 대한 논의에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했다. 5~6학년 학생들은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떤 쉼터가 있으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 정리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당장은 어려운 것 등을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등나무 벤치에

탁자를 놓고, 운동장 나무그늘에 흔들 그네를 설치하고, 잔디밭에는 야외 탁자를 두어 쉼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정해졌으면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 목공이 서툰 학생들을 위해 낙안초 52회 졸업생 박인규 씨가 지원강사로 나섰다. 그는 나무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톱질하는 방법, 사포질 하는 방법, 치수재는 법 등을 알려주었다.

완성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쉬는 시간과 방과 후 시간마다 운동장이 학생들로 바글거렸다. 작업을 구경하고, 돕기도 하느라 왁자지껄이었다. “그림만 그려놓으면 ‘평’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지니처럼.” 학생들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며 재잘거렸다. 학생들의 활동을 전해들은 졸업생들과 학부모, 마을활동가들이 틈틈이 찾아와 손을 보탤었다. 선생님들도 톱밥을 뒤집어쓰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가며 함께 했다. 가끔은 간식도 샀다.

이윽고 11월 13일 완성되었다. “우리가 고대하던 쉼터가 만들어졌다. 내가 만든 그네에 내 이름을 새겼는데, 그거 보면서 꿈을 이룬 것 같아 감격스럽다. 선생님,

부모님, 지역 어른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가능했다. 졸업 후에도 학교 오면 가장 먼저 ‘내 그네’를 찾아봐야겠다.”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 작업을 하던 최경모 학생이 말했다.

마을학교 활동가이자 프로그램 운영자인 박향순 교사는 “학생들이 발품과 머리품을 들여 다함께 누릴 목공 쉼터의 아이디어를 내주었고, 만들기까지 했다. 이 과정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마을 사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드나들고 한마음으로 참여했다. 학교는 마을에서 존재한다. 마을학교가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나무 그늘 사이로 햇살이 떨어진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성이 묻은 흔들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눴다. 잔디밭에서 몇몇은 ‘목찌빠’를 하며 놀고 있었다. 등나무 아래선 책을 들고 나온 아이들이 삼삼오오 독서 중이다. “바람은 좀 부는데, 자꾸 밖에 나오고 싶어요. 내가 만든 공간이 보고 싶어서요.” 박향순(낙안초 교사)

진월초 평화위원회, 사과데이

광양 진월초등학교(교장 조미영) 평화위원회가 11월 4~8일을 회복적 생활교육 실천 주간으로 하고, ‘사과데이’를 운영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날이다.

학생들은 친구에게 미안했던 일, 선생님께 죄송했던 일 등을 떠올리며 편지를 써 전달하고, 진짜 사과를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평화위원회는 학생들의 편지를 모아 복도와 현관 사과나무에 달아두고, 함께 읽으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월초는 학생들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미영(진월초 교장)

삼향초, ‘학교가 우리 꿈 도화지’

무안 삼향초등학교(교장 조영의)에는 학생들의 꿈이 그려진 특별한 거리가 있다. 학생들이 직접 꾸민 것이다.

삼향초는 학생들의 예술·감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를 하나의 도화지로 생각하고 직접 꾸미는 ‘도화지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다.

삼향초 특별한 거리는 본관과 별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다. 이곳은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지만, 시멘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삭막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타일에 그리고 통로에 직접 붙였다. 이 과정에 전남예술고 교사와 벽화동아리부원들이 도왔다.

조영의(삼향초 교장)

여수 안일초, 마을과 유대 돈독

안일초등학교(교장 이경애)가 11월 7일 ‘안포씨(sea)농촌체험휴양마을(대표 나인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학교와 지역이 서로 협력해 함께 발전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안일초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운영하며 마을에 있는 ‘안포휴양마을’을 찾아 갯벌 체험, 고구마 캐기 등을 체험했다.

이러한 ‘안포휴양마을’ 관계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 기회를 주고 있어 주민들이 기뻐한다. 앞으로 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유향숙(안일초 교사)

영화 ‘씨니’ 주인공처럼 학창시절로 고고!



장성중앙초 학부모, 뮤직비디오 제작
매주 학부모 영상제작교실 참여해

장성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학교 주변 사람들과 사물을 촬영하고 편집해 한 편의 영상을 완성했다. 이 영상은 방울샘축제에 상영되기도 해 큰 화제가 되었다.

장성중앙초(교장 강대영)는 지난 10월 2일부터 6주간 ‘학부모회 영상제작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영상제작교실은 자녀 학습 지원, 개인 취미 개발, 사업에 필요한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였다. 수업은 영상촬영의 원리, 영상 제작 과정, 유튜브 탑재 등 총 6강이 진행되었다. 매주 2시간씩 진행되는 강좌였지만 20여 명의 학부모들은 결석없이 꼬박꼬박 수업에 참여하며 열정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완성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렸고, 장성중앙초 방울샘축제에서 상영했다. 뮤직비디오 같았다는 게 현장의 평. 특히 이번 교육은 장성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해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기획, 참여한 것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 비결로 보인다. 학부모가 원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세라 학부모회장은 “학부모들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영상제작교실을 운영해 참여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저녁 시간까지 봉사하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어 즐거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대영 교장은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만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https://youtube.com/L15CKpG8uUQ>)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장동국(장성중앙초 교사)



자세히 보아 더 사랑스럽다, 구례여중 지역 연계 수업 활발

구례여중, 구례사랑 프로젝트 수업
학년별·교과별 다른 구성으로 진행
지역 자긍심 높이는 데 목적

“어쩐지 구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나?”

석주관성을 내려오며 학생 중 하나가 친구에게 말했다. 11월 8일, 구례여자중학교 학생들은 구례사랑 걷기 중이었다. 학생들은 석주관성과 연곡사 지구를 거쳐, 피아골에서 전통 요리 체험을 할 예정이었다.

구례여중(교장 성금죽)은 2학기에 ‘구례사랑 프로젝트 수업 연계 체험학습’을 추진했다. 이것은 각 교과목별로 구례와 관련된 수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체험하는 프로젝트 학습이다. 3년째 계속하고 있다.

먼저 구례여중 선생님들은 학년별·교과별로 구례사랑에 관련한 수업을 진행했다. 도덕수업에는 구례 속 여순사건의 흔적을 찾고, 전란 때 화엄사를 지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역사수업에는 화엄사 가람배치 양식과 국보와 보물을 공부하고, 석주관성에 서린 의병의 얼과



연곡사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워 순국한 고광순 의병장의 치열했던 삶을 전했다. 수학시간에는 연곡사 탑 높이를 삼각비를 이용해 측정하고, 과학시간에는 구층암 모과나무 기둥의 신비와 화엄사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건축기술 그램이 공법의 원리 등을 풀었다.

8일에는 교실 내에서 들었던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참여했다. 걷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에게 인사드리고,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다. 탐방과 체험은 학년별로 이루어졌다. 학년별로 수업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1학년은 구례 광의 산동지구 예술인 마을에서 아크릴관화 체험을 하고, 산수유 시인마을 흥준경 시인에게 산수유 마을의 변화와 시 짓기 등을 들으며 걷기를 하였다. 택시운전사이면서 문화해설사로 활동 중인 임세웅 해설사와 함께한 2학년은 마산면, 화산지구에서 화엄사의 역사와 문화재를 듣고, 구층암에서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쌍산재에서 음악과 꽃을 이용한 꽃치유 시간과 노고마을에서 도자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역사선생님과 함께 걷은 3학년은 석주관성, 연곡사 지구에서 정유재란과 구례 의병, 연곡사 이야기, 고광순 의병장순절비에 대해 듣고, 피아골에서 전통장류와 요리체험을 했다.

3학년 김재경 학생은 “구례에 16년 살면서 수업이 연곡사와 석주관성을 가보았는데, 학교에서 장소에 얽힌 역사와 의미를 알려주어 구례가 더 사랑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성금죽 교장은 “앞으로 구례사랑 프로젝트를 계속할 예정이다. 학년별로 장소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구례를 더 자세히 보고 더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구례여중은 교과 수업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학습과 생활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내 고향 구례’에 대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미숙(구례여중 교사)

발레 배울 어린이, 강진 작천초로 오세요



강진 작천초, 지역 유일 발레부 개설
매주 화·목 수업, 유·초등 청강 가능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가 되면, 작천초등학교 까치내관 앞에 차량들이 속속 들어온다. 작천초 ‘발레 수업’을 듣기 위해 걸음한 어린이와 보호자들이다. 강진 관내 5~7세 어린이 1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원래 강진군에는 발레를 가르치는 학원이나 학교가 없었다. 아이가 발레를 배우고 싶어도 교육기관이 없어 애태웠던 부모들이 많았다. 실제 작천초 내에서도 저학년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발레부 개설 요청이 이어졌고, 학교는 지난 봄 전문 발레 강사를 채용하여 발레부를 개설했다. 더 나아가 5월에는 학교 밖 어린이들에게도 무료 교육 기회를 활짝 열어 주

었다. 때문에 학부모들이 차로 20~30분이 걸리는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 이곳 작천초에 등교하고 있다.

까치내관 안, 이동식 거울과 발레봉이 자리를 잡으면 클래식 선율과 동요 가락에 맞춰 어린이들이 발레 동작을 뽐낸다.

이소는 어린이는 “우리 학교에서 발레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발레를 배우러 오는 동생들과도 많이 친해졌어요. 더 많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손짓했다.

작천초등학교(교장 전춘식) 발레 수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강진 관내 유·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청강이 가능하다. 방학없이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1-432-6005.

최민유(작천초 교사)

예당초, 수확의 기쁨 느낀 일 년 농사

부모님 마음 이해하고 감사해

보성 예당초등학교 전교생이 11월 15일 가을 추수에 나섰다. 고구마를 캐고 가지와 호박을 따고 밭을 정리했다.

예당초(교장 구경석)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우리 고향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학생들이 직접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의 주요 산업인 농사를 이해하고, 부모님에 대

한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젝트는 한 해동안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고구마를 수확하고 구워서 나눠먹었다. 김하은 학생은 “봄에 심은 고구마가 자라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니, 엄마 아빠가 농사지어서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농사가 조금 힘들었지만 벌써 친구들과 내년엔 무엇을 심을 것인지 회의하고 있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주정미(예당초 교사)

아들과 단 둘이 첫 산행

여수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가을산행

여수중학교(교장 송남진) 학생들이 학부모와 가을산행을 떠났다. 여수중 교육가족들은 돌산 화태둘레길을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산행은 아침 10시 화태대교에서 시작되어 12시 월전까지 둘레길을 따라 걷는 코스였다. 여수중은 가족사진 찍기, 보물찾기, 편지쓰기와 편지낭송, 학부모 업고 달리기 등을 진행했다.

학부모들은 “아들과 단 둘이 한 첫 산행이어서 어색하고 긴장했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이 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송남진 교장은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



생을 위한 좋은 행사를 즐겁게 많이 기획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무관심하면 힘이 빠진다고 하며 “학교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꼭 보답하겠다”고 당부했다.

박래근(여수중 교감)

3.65kg 연탄 한 장에 전해지는 36.5℃ 따뜻한 체온

목포 문태고·보성 노동초·나주고 RCY 학생, 학부모, 교직원 사랑의 연탄 배달

날이 좋았다. 바람은 꽤 차가웠지만 별이 좋아 따뜻했다. 문태고 학생들은 서로에게 묻은 감장을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야야, 살살해~. 깨지른 니가 사라~.” 좁은 골목으로 길게 늘어선 손 위로 3.65kg 연탄이 지나갔다.

전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 훈풍을 몰아오고 있다. 11월 2일 나주고등학교(교장 정행중) 1, 2학년 RCY단원 69명이 나주 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 4세대에 ‘사랑의 연탄’ 200장씩 배달했다. 특히 학생들은 십시일반 용돈을 모아 연탄 800장을 마련하고, 성북동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원 가구를 선정했다.

또, 14일에는 노동초등학교(교장 김선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 나주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

미)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보성지구와 함께 연탄을 날랐다. 이날 저학년들과 유치원 학생들은 노동면 지심경로당에 방문해 어르신들을 뵙고 안마를 해드렸다. 또 실로폰과 장구 공연도 펼쳤다.

9일에는 화순중학교(교장 조병연) 학부모·학생봉사회 ‘관악012’는 매월 용돈 5,000원씩을 모은 돈으로 연탄을 기부했다. 올해로 4년째 나눔이다.

앞선 10월 26일에는 나주시 세지면 일원에서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

은 (사)김제동과 어깨동무 관계자들과 5개 학교 연합 봉사단원들과 함께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연탄은 김제동과 어깨동무가 후원했다.

이밖에도 16일에는 문태고등학교(교장 김승만) 1, 2학년 재학생 38명으로 이루어진 무지개봉사단 연탄나눔팀은 목포시 서산동 일대에서 연탄 1,000장을 배달했다. 봉사단은 유달동주민센터의 협조로 거동이 불편하고 겨울철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문태고 졸업생까지 함께해 추억을 더했다.

연탄배달에 참여한 문태고 전문지 학생은 “연탄을 들었던 건 처음이었다. 친구들과이랑 함께 하니깐 별로 힘들진 않았다”며 “내 작은 힘이 주변 이웃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명주(문태고 교사) 외

장흥고 제40회 졸업생 장학금 500만 원

후배 사랑으로 유명한 장흥고등학교(교장 김광수) 동문들이 장학금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11월 8일 40회 졸업 동문 모임 ‘좋은 친구들’은 장학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금씩 모아온 회비를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았다. 앞서 장흥고 서울 동문회에서는 3,000만 원(컴퓨터 42대 교체)을, 익명의 동문은 1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예형(장흥고 교사)

월평초, (주)고려시멘트 사이좋은 ‘이웃’

(주)고려시멘트가 11월 5일 월평초등학교(교장 최명심)에 향후 10년간 학교발전기금 500만 원씩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월평초와 인접해 위치한 고려시멘트는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이 지역과 기업 발전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내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2016년부터 매년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기금은 장학금과 6학년 역사문화탐방 지원금으로 매년 활용될 예정이다.

김창영(월평초 교사)

한재초, 영어 하고 나눔도 하고

한재초등학교(교장 김남호)가 11월 21일 사랑·영어 나눔 바자회를 열었다. 3~6학년 학생들은 ‘영어만 쓸 수 있는 마켓’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쿠폰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다.

또한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바자회 물품과 음식을 판매해 이웃돕기 성금을 모았다.

고영창(한재초 교사)

광양하이텍고 봉사동아리 ‘푸른비전’ 여성가족부 장관상

장애인과 함께 빵 만들기 어려운 이웃 위문 활동 활발 3년째 봉사상...나눔문화 확산

광양하이텍고 봉사동아리 ‘푸른비전’이 11월 9일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 경진대회’ 시상식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

상하였다.

청소년 재능 봉사동아리 ‘푸른비전’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 지역 발달 장애인을 초청해 ‘사랑의 빵 만들기’ 체험 활동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또 학생들은 과자와 빵을 직접 만들어 재가복지시설 ‘실로암마을’을 방문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위문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학생들이 장애인

들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푸른비전’의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전남교육감상, 2018년 전남지사상을 거쳐 3년 연속 수상한 것. 김성태 교사는 지도교사 부문에서 전남지사상을 받아 겸경사를 맞이했다.

김성태(광양하이텍고 교사)

빛누리초, 용돈 모아 세계 시민 도와



월드비전 희망나눔 캠페인 참여 모금 저금통에 약 215만 원 모아

나주 빛누리초등학교(교장 김인선)가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주최한 글로벌 희망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11월 19일에 사랑의 빵 저금통을 전달했다.

글로벌 희망나눔 캠페인은 에티오피아, 잠비아 아동과 주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사업(학교 건축 등)과 식수위생지원사업(우물건축, 보건 위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빛누리초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빵모양의 모금함을 배포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이끌었다.

학생들은 캠페인과 관련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용돈을 모았다. 총 345개의 모금함이 모여 214만 6,080원의 기금이 마련되었다.

월드비전 임원은 빛누리초 학생들의 나눔에 감동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린 학생들이 세계 시민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 씀씀이가 먼 나라에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숙(빛누리초 교사)

지구가 아프오 환경을 지켜요!

무안공공도서관 아내바다 플리마켓

12월 5일 ~ 6일

2층	중고물품·생활용품 나눔장터
	유치원·어린이집 인형극 <골고루 먹는 튼튼대장> 오전 10:30~11:30
1층	헌책 나눔 오전 10:00~오후 5:00
	초의차 체험과 시음 오전 11:00~오후 5:00

‘양념 듬뿍, 사랑 듬뿍’ 김장김치 담가 마음 나눴어요

장흥관산중·진원동초·순천효산고 등 마을 어르신들 찾아 마음 나눴

전남 곳곳 학교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흥관산중학교(교장 장이석)가 11월 22일 첫 문을 열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김치를 담가 마을 어르신들 댁에 전달했다.

“정성으로 담근 김치를 마을 어르신께 직접 전해드린다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학교랑 마을에 사랑이 가득 찬 느낌이랄까?” 장흥관산중 김주영 학생이 말했다. 그는 잘 비빈 김치를 살포시 말아 김치통에 꼭꼭 눌러 담았다.

27일 장성 진원동초등학교(교장 나미숙)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특히 김장 재료로 쓰일 배추와 무는 학생들이 2학기 동안 직접 가꾼 것이어서 그 의미가 컸

다. 학생들은 배추 씻고 속 가르기, 솥 죽이기, 양념 버무리기까지 김장의 모든 과정을 직접 했다. 진원동초는 12월 중에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를 열고, 이날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전남교육청이 영암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소년·소녀 학생 가장 후원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 교직원들과 자원봉사자 70여 명은 1,650포기를 버무리 형편이 어려운 275세대와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나눴다.

이밖에도 순천효산고 관광조리과 학생들이 순천시 승격 70주년 김장 나눔 대축제에 참여해 3,000여 명의 봉사자들과 김장을 담갔다. 효산고는 학교 특색을 살려 2015년부터 매년 김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수빈(장흥관산중 학생기자) 의



11월 27일 진원동초가 연 ‘사랑 한 쌈 김장나눔’

포스코 교육기부로 과학인재 꿈 키워

직원들 2004년부터 학습 나눔

11월 11일 광양중진초등학교(교장 임미현)에 포스코 직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2004년부터 매년 학생들에게 공학기

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팀이다. 포스코 직원들은 초등학교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실험 등 과학자로서의 꿈을 심어주는 체험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은 6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

히 수업과 연계해 실습을 진행해 아이들의 관심이 높았다. 학생들은 1학기에 배운 ‘전자식 장치를 활용한 철의 재활용’을 주제로 철의 친환경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스코 주니어 공학교실팀의 학습 나눔은 지역 학생들이 미래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주 기업 사회공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고락동(광양중진초 교사)

보성 다향고, 행복은 빵 냄새 타고

보성 다향고등학교(교장 김선경)가 올해로 8년째 제빵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 굽는 날’이다. 다향고는 노인·아동·장애인시설 등을 찾아 크림빵과 단팥빵 등을 구워 시설 등에 전달했다.

정진아(다향고 교사)

무·배추 키워 직거래... 수익은 이웃돕기

목포제일정보중·고 농수산물 장터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이 아입니다. 아침에 막 따온 싱싱한 배추 있어요.”

11월 15일,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교장 김성복)에서는 학생들이 농수공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장터가 열렸다. 배추, 무, 고구마, 감정 쌀, 부추, 울금, 달걀, 벌꿀 등 싱싱한 농축산물과 윤기나는 새우젓, 멸치, 김, 미역, 다시마, 청각 등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장터에 우르르

몰려왔다. 선생님들과 마을 사람들도 대열에 합세했다.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좋은 물건을 시장가보다 싸게 판매해 호응이 좋았다. 특히 배추와 무는 아침에 생산지에서 막 뽑아와 ‘완판’을 달성했다.

제일장터는 학생회 주관으로 열렸다. 학생들은 수익금의 전부를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쓰기로 했다.

한편 목포제일정보중·고는 현재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중이다. 문의 061-276-4947.

김광복(목포제일정보중·고 교사)



원어민교사·영어교사 수업 기부 ‘훈훈’

전남국제교육원 소속 원어민·연수생 수업정보 공유·교육기부 문화 확산

전라남도국제교육원(원장 고미영) 소속 원어민 교사와 6개월 심화연수에 참가한 초·중등 교사들이 영어수업 기부 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교사들은 11월 7일 팀별로 준비한 활동 자료를 가지고 구봉중학교 2학년과 여수동백초등학교 3~6학년 교실을 돌며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교사들은 영어 문장 만들기, 스피어 게임, 좀비 역할 놀이, 스크램블 게임, 보카트레인 영어단어 맞추기 게임 등 활동을 준비해 학생이 영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이날 수업기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는 영어공부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연수 때 익힌 수업 방법을 현장에 적용해보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남국제교육원은 수업기부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의 장이 마련되고, 원어민 강사와 연수생의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수(전남국제교육원)

광양가야초 학부모회, 도서바자회

광양가야초등학교(교장 전다복) 학부모회가 11월 20일~22일 도서바자회를 열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어 독서를 소홀히 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극복하고 책을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되었다. 학부모회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신간 위주로 유아도서, 어린이도서, 일간도서 등을 준비했으며, 행사 수익금은 광양가야초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문성원(광양가야초 교사)

계산초 병설유치원, 효 사랑 실천

계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백형률) 원아들이 11월 6일 우리밀 유기농꾸기틀 만들어 어르신 돌봄 전문센터를 찾았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정삼수 제과기능장이 아이들에게 쿠키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아이들은 직접 만든 쿠키와 떡, 과일 등을 센터에 전달하고, 우쿨렐레 연주, 무용, 장구, 합창 등 공연을 펼쳤다. 또 유치원 아이들은 이번 나눔을 위해 한 학기 동안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윤혜선(계산초 교사)

구독신청 061-260-0809
기사제보 061-260-0808
jn-edu@naver.com

전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 대입지원 나섰다!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참여
실제 대입 면접처럼 진행



전라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찾아가는 전남교육정책연구회(대표 이학제)’가 전남교육청과 함께 11월 2~3일 목포권역 진학지원센터와 16~17일 여수권역 진학지원센터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대입 모의면접을 진행했다.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입시환경을 가진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수시면접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이번 모의면접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경험이 있는 전직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4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모의면접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면접장 분위기에서 진행돼 앞으로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학제 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고액컨설팅 비용을 초래해 부자전형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전남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교육 내에서 입시지도를 받고 있다”면서 “더욱더 많은 전남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승희 도의원, 학생 학교운영위 참석·자치공간 확대해야

우승희 도의원(영암1)이 11월 12일 전남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와 학생자치공간 확대를 주장했다. 우 의원은 올해 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2,140회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144회만 학생이 참여했으며,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 참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개교 중 43.4%만이 구축되어 있어 학생자치공간이 턱없이 부족함을 짚었다.

우 의원은 “학생들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가 학생중심의 공간이 되기 위해 여건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은 총 827

최무경 도의원, 여수 응천지구 학생 과밀화 해결 강조

최무경 도의원(여수4)은 11월 8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응천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로 학생 과밀화 문제가 예상돼, 교육 공간 확보와 신선헬교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욱 좋은 교육환경이 조속히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중학교 과밀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상임위원회가 응동초 신설과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이밖에도 최 의원은 여수지역 축구부 창단을 건의하고 ‘청소년전통연희단 굴렁쇠놀이패’ 상설연습장 확보 등 지역교육현안을 점검했다.

이장석 도의원, 전남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우선

이장석 의원(영광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를 지적하면서 “중증장애학생 등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액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전라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는 이 의원의 주장을 적극 반영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인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 23억6천여만 원을

유성수 도의원, 대입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

유성수 도의원(장성1)은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은 수시 비중이 매우 높아 정시 확대에 방점을 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하이플러스 지원사업, 거점고 육성사업 등을 세밀하게 가다듬어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수 있는 고품질 온라인 강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학지원센터가 5곳 구축됐지만 권역별로 설치돼 있다. 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주 도의원, 학교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 촉구

최현주 도의원(비례)은 12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 보안을 담당하는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 자체예산 등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최현주 의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봉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도내 64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로계약 체결 없이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활동수당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또 운영일수도 180일에 불과하고 초과

조광영 도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야

조광영 도의원(해남2)이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청의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광영 의원은 “같은 연령인데 다니는 교육기관이 다르다고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도청

이는 전남도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에 초·중 무상급식 계획을 확정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는 어린이집·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았

과 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어린이집까지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민호 도의원, 교육부 인건비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신민호 도의원(순천6)이 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안을 교육부에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 발생하게 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부의 인건비 단가 산정방식 개정으로 정원에 휴직자가 제외돼 전남·경북·강원교육청은 손해

또한 “전남은 700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교육부에 강도 높게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전남교육소식들은 여기 다 있다!

전남교육 미디어포털 오픈 기념 홈페이지 이름 공모

기간 11. 22. - 12. 04.

방법 카카오톡(전남교육)으로 홈페이지 새 이름과 추천 이유 보내기

문의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실 260-0808

여수고 기다슬, '2019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실패해도 포기 모르는 도전정신
초·중학생 대상 재능기부 적극



분에 전남교육감으로부터 발명(창업)활동 표창을 받고, 제64회 전라남도 과학전람회 특상 및 제64회 전국과학전람회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미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인재다. 기 군은 교육 기부 활동도 활발하다. 그는 여수고가 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는 '나뉘라 과학놀이 교실'에 참여하며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했다. 참여 초·중학생들은 "선배에게 직접 배우는 과학 활동으로 어려웠던 과학이 즐거워졌다"고 좋아했다. "과학은 결과의 실패를 두려워 않고 성

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재미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의 가치를 전달하고 싶다"고 기다슬 학생은 말했다.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여수고에 입학했을 때는 평범했어요. 한 가지 남들보다 포기가 늦었던 거 같아요. 실패해도 계속 하고. 오기와 도전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의 어게 뒤로 긍정의 아우라가 뿜어나오는 듯 했다. 여수고는 과학중점학교로 수학·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열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기다슬 학생처럼 도전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인재가 또 나오길 기대해본다.

문셋별(여수고 교사)

한국바둑고 김유찬 학생 프로 입단

한국바둑중·고 제5호 프로기사가 탄생했다. 1학년 김유찬 학생이 제20회 지역연구생입단대회에서 수졸(초단의 별칭)에 오른 것. 김유찬 초단은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7살 때 바둑에 입문했다. 전북에서 중학교를 다니며 하성봉 사범의 지도를 받았고, 올해 바둑고에 입학해 입단의 꿈을 이뤘다. 이장재(한국바둑고 교사)

광양하이텍고, 창의융합대회 대상

광양하이텍고등학교(교장 강수원) 학생들이 전국 규모 창의융합 메이커 경진대회(전국 학생 4-H과제 경진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선혁, 이승원 학생은 '공간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캐리어'를 발명했다.

정휴중(광양하이텍고 교사)

광양중앙초 여자축구, 전국 3관왕

광양중앙초등학교(교장 최은순)가 11월 10일 '2019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여자초등부 산천어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 5월 전국소년체전 금메달, 6월 여왕기 우승에 이어 올해만 3개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개인상으로 결승 선제골을 터트린 김애리 선수가 최우수상, 범예주 선수가 득점상, 손백기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각각 수상했다.

유은혜(광양중앙초 교사)

해남동초, 천상의 목소리들

해남동초등학교(교장 김천옥) 합창단 벨라보체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감동을 주고 있다. 11월 7일 '벨라보체'는 '2019. 전남초등합창제'에서, 합창단원 박가을 학생은 '제5회 전국 어린이동요대회'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 해남동초는 예술적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박여진(해남동초 교사)

순천효산고, 전국 요리대회 '두각'

순천효산고(교장 최상경)가 11월 열린 '2019 KOREA 월드푸드 챔피언십대회' 단체 라이브요리부문에서 박슬기(관광조리과 3년) 학생 외 3명이 금메달을 받았다. 효산고는 관광조리과와 관광의식서비스과에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셰프 꿈나무'의 산실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봉원금(순천효산고 교사)

목포공고, 꿈 찾기 으뜸

목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상호) 드론부 학생 4명과 화공과 김수비 학생이 제7회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 '몽키'에서 각각 목포시장상과 국회의원상을 받았다. '몽키'는 청소년의 체계적인 진로 계획 수립을 위한 축제다. 목포공고는 현재 취업 매칭률 50%를 달성한 명문 특성화고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다.

김상호(목포공고 교장)

전남 국어 선생님들, 수업 개선 '오졌다'

남악고 김병국·여수고 이동윤 교사
'EBS 교수학습자료 공모전' 수상



11월 8일 '제3회 EBS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공모전' 국어부문에서 남악고등학교 김병국 국어교사(좌)와 여수고등학교 이동윤 국어교사(우)가 각각 교육부장관상과 EBS사장상을 받았다. 이 공모전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참신한 EBS 콘텐츠 활용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전국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대회다.

김병국 교사는 '노랫말로 보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주제로 문법 수업을 진행하였다.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의 노랫말에서 찾도록 하는 탐구 활동 수업이다.

이동윤 교사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사회 현상을 반영한 '신조어 찾기 및 나만의 새말 사전 만들기' 모듈 활동과 문법의 '문장 성분'에 대한 내용을 연계한 수업을 선보였다.

공모전 수상 자료와 관련 수업 영상은 EBS 교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담배 피우지 말아요" 학생 캠페인 돋보여

장성 서삼초·함평고 학생들
청소년흡연예방 공모전서 수상

청소년흡연예방문화제 전국대회 공모전에서 장성 서삼초등학교와 함평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각 최우수상과 입선을 수상했다.

서삼초(교장 김현주) 6학년 윤찬웅·김준상 학생으로 구성된 '나는 금연맨' 팀은 '흡연피물과 맞서 싸우는 금연맨'이라는 제목으로 60초 영상을 만들었다. 학생이 직접 연기하고 편집해 그 의미가 크다. 함평고(교장 양훈) 예술동아리 'CG 캐릭터 일러스트부'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부문에서 입선을 수상하였다. 동아리 부원들은 페이스페인팅 활동, 금연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흡연예방 포스터 그리기 등 미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연 활동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공모전은 전국에서 1,961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81개 작품이 수상했다.

오혜령(서삼초 교사)·조가연(함평고 교사)

정남진산업고 최성진 학생, '여가부장관상'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 3학년 최성진 학생이 전남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을 실천한 우수 청소년들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최성진 학생은 1학년 때부터 그룹홈에서 학습도움, 컴퓨터지도, 체험활동 등 봉사 활동을 지속했다. 시간들을 모아보



를 땀다.

니 3년 동안 617시간이 나 되었다. 최 군은 틈틈이 자기 개발도 힘써 용접, 농기계 정비, 건설기계 정비, 굴삭기 등 자격증 19개

를 땀다. 김명철(정남진산업고 교사)

나주공공도서관 책 심터 갤러리 무료 대관 신청

책도 읽고 미술도 감상할 수 있는 '책 심터'의 갤러리 공간에 지역 예술가님들을 모십니다

- 공간** · 전시기간 최대 1개월 가능
- 전시규모 최대 30점 가능
- 시설정보 전시대 조명시설 있음

- 신청** · 신청기간 11월 18일부터 상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팩스, 전화
- ※ 신청서 나주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있음

- 대 관 료 무료
- 신청문의 나주공공도서관 330-6724

전남교육청, 전남지역사 교육자료 개발

학교 현장 역사교육 강화 지원 “전남 역사 왜곡·축소 막을 것”

전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남지역사 교육자료’ 3종(한말 의병, 여순10·19사건, 5·18민주화운동)을 개발해 도내 중·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선정해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정신을 계승·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전남역사교사모임 소속 역사교원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자료 개발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이번에 발간된 전남지역사 교육자료 1~3권은 그 첫 결과물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말의병, 여순 10·19,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그동안 왜곡되거나 그 범위가 축소되어 연구·조사 되었다. 교육자료집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지역 사람들의 정의로운 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전남 역사교육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사 교육자료는 교육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본자료와 함께 다양한 사진자료를 담아 이해



를 쉽게 했다. 교사들이 역사교과 심화수업과 자유학기제 체험학습, 역사계기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도 담았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중학생이 보는 학생독립운동’ ‘고등학생이 보는 학생독립운동’ 등 2종의 책자도 개발했다. 이 책자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남 지역 중·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 총 595곳에 보급됐다. 광주대 한규무 교수,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를 중심으로 전남의 역사교사들이 다수 집필에 참여,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에 방점을 두고 개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개발한 교재 5종에 대한 학교 현장 적용 연수를 갖고, 교실수업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5~16일 진행된 도내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여순사건 개발자료 적용 및 체험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현장연수는 12월까지 이어진다.

전승윤(교육과정과)

목포미향초 교사 독서토론 동아리, 학교생활 인성교육동화 발간

목포미향초등학교(교장 김정자) 교사 독서토론 동아리 ‘책사랑 미향’이 동화책을 발간했다.

‘책사랑 미향’은 전문적학습공동체다. 학교 혁신을 구현하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책 읽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다. 교사들은 지난 10월 학생 인성지도 관련 토론에서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성교육동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쓰

레기 주인 찾기’다.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 학생들 사이에 공감에 생겼고, 학생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류진희(목포미향초 교사)

책 이야기

성장을 위한 사색

(사색이 자본이다)를 읽고

이 책은 저자 김종원이 세상의 물을 바꾼 세기의 천재들을 5년 간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경쟁력이 사색가적인 능력에 있음을 집약해 놓은 ‘사색 입문서’다.

이 책에는 동서양의 위대한 작가와 철학자, 사상가를 비롯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인물들이 즐비하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소개한 대목들이 많아서 읽는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책이라서 진도가 나가지 않지만 사전처럼 곁에 두고 틈틈이 읽으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안겨주는 책이다.

일 년에 두 번 생각주간을 갖는 빌 게이츠, 1년에 50주는 사색을 하고 2주만 일한다는 워런 버핏, 자녀들에게 사색의 놀라운 힘을 느끼게 하려고 자녀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을 금하고 있다는 구글 직원의 이야기는 현대인에게 사색의 중요성을 역설하고도 남는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사색하는 인간이길

“세상에 길은 수없이 많지만 모두가 목적지는 같다. 말을 타거나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고 돌이서, 썰이서 달릴 수도 있지만 마지막 걸음은 혼자서 디뎌야 한다. 때문에 모든 고난을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지식도 능력도 없다.” -헤르만 헤세

혼자서 찾아온 인생길에서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다. 혼자서 가야 하니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다치겠는가. 그러나 넘어진 횃수만큼 면역력과 회복력,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 두려워 말라는 뜻이다. 마지막 그 한 걸음의 동반자는 바로 ‘사색하는 힘’이리라. 아직도 더 넘어져야 할 걸림돌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로 삼을 것을 다짐한다.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자산은 그 사람이 넘어진 횃수의 합이다.”

장옥순(도민 기자·수필가)

이런 책 어때?



진정으로 재밌는 축제
우리 모두 주인공
최형미 / 킨더랜드 / 2016

아마 대부분 참가자 혹은 운영자로 적어도 한 번쯤은 축제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을 거다. 누군가는 축제의 중심역할을 맡아 하늘을 날 듯 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맡겨진 역할의 소소함에 실망한 적도 있었지 싶다.

‘우리 모두 주인공’은 마을 축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다두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축제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준다. 학예회가 한창인 요즘 내가 맡은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주인공인 축제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까? 니키 테이트 / 초록개구리 / 2017
- 놀면서 배우는 세계 축제 유경숙 / 봄별 / 2016
- 둥글둥글 지구촌 축제이야기 정인수 / 풀빛 / 2011

정국화(빛누리초 사서교사)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1초전
로맹 사르두 / 문학동네 / 2008

12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여기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책이 있다. 딸에게 멋진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 위해 썼다는 작가의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 책은, 가난한 고아 소년인 산타 할아버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흥미롭다.

올해가 지나기 전, 가족과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조금 쑥스럽다면 크리스마스를 핑계 삼아 ‘올 한 해도 고마웠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도 좋겠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더욱 행복하고 마음 파스한 2020년이 열리길 바라본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할머니의 열한 번째 생일 파티 라헬 판 코에이 / 낮은산 / 2007
- 코기빌 마을 축제 타샤 튜더 / 월북 / 2009
- 그 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은용 / 문학과지성사 / 2016

구혜진(구례초 사서교사)



러브 유어셀프 Love Yourself
성모의 곡예사
R.O. 블레이크먼 각색·그림 / 산티 / 2006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도 고민해 본다. 곡예사 캄탈베르도 성탄절 축제를 맞아 성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민 중이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할 줄 아는 게 없다며 슬퍼하지만 가장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

1점으로 등급이 바뀌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좌절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나는 아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작아질 때 자신만이 가진 빛나는 보석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 이 책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도 부디 그러하길.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폴오스터 / 열린책들 / 2001
- 축제 이청준 / 문학과지성사 / 2016
- 유럽 음악축제 순례기 박종호 / 시공사 / 2012

서미경(목포고 사서교사)

미래를 준비하는 필수 능력, 소통과 공감의 힘 기르는 감성수업

<교단에서>

여수미평초 조선미 수석교사 감성수업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 방영되
감정표현력 높아지고 학교폭력은 감소

어?! 즐겨보는 EBS <미래교육플러스> 프로그램에 11월 12일 낮익은 이가 출연했다. 여수미평초등학교 조선미 수석교사였다. 조 교사와 4명의 전문가가 ‘소통과 공감의 힘, 감성수업’을 주제로 50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시대에 유일하게 인간만의 영역인 감성을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머리의 힘을 기르는 수업보다 마음의 힘을 기르는 수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학교 현장에서 감성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우수사례로 조선미 교사의 감성수업이 꼽혔다.

여수미평초 4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보고 있었다. 화가 났을 때 내 몸에서 어떤 변화

가 일어나는지 그림으로 표현하기, 친구나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기, 성장보석과 자랑보석 활동을 통해 친구의 가치 보석(긍정·예절·도움 등) 찾기, 말을 하지 않고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 마음 표현하기 등을 통해서다. 전찬누리 학생은 “오늘 수업은 나에게 삽질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삽질하듯이 캐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조선미 교사는 30년 간 감성수업을 실천해왔다. 그동안 그의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감성수업을 하고 난 학생들은 “후련하다, 진즉 말할 걸 괜히 참았다.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감정 표현력이 향상된 것이다.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학교폭력의 감소다. 지난해 여수미평초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18회나 열렸다. 방학을 제외하면 일주일마다 한 번 정도 ‘학폭위’가 진행된 것이다. 일부 선생님은 원형탈모가 오고 심한 경우 휴직을 하기에 이르렀다. 감성수업이 시작된 올해는 ‘학폭위’가 단 한차례 열렸다.



EBS <미래교육 플러스>에 소개된 여수 미평초 수업. EBS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가능



◀ 다시보기 QR코드

방송 말미, 조선미 교사의 당부는 교사인 내게 큰 울림이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잔소리에요. 잔소리는 언뜻 유익한 말이지만 교사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화라는 거였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감성수업을 실천하면 지식 교육은 자연스럽게 따

라온다고 했다.

오직 인간만이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감성교육은 꼭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 교대·사대 교사 임용 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초·중·고의 정규 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어떤 교사라도 쉽게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 및 마을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한 소통이 필요하다. 넷째, 감성수업의 적극적 실천이다.

미래를 준비할 필수 능력으로 감성지능(EQ)이 꼽히고 있다.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말한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IQ 높은 사람보다 EQ가 높은 사람이 더 성공적인 리더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다. 전남의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감성수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길 기대한다.

나미연
광양미평초 수석교사



모든 것이 우리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손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들 이야기>

빛나는 달 아래 화원캠프
화원초 학생자치캠프 참여후기

우리 학교가 10월 8일~9일 학생자치 캠프 ‘빛나는 달 아래 화원 캠프’를 열었다. 캠프의 시작은 6학년 여학생들로부터였다. 6학년 여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조금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거리로 만들어보자며, 반별 캠프를 기획했다. 이 소문을 듣자 5학년 학생들도 함께하기로 나섰다.

전교회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여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었다. 미니 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담력훈련 등 학교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잔뜩 있었다. 나는 담력훈련 ‘옥상으로 따라와’의 담당자로 지원했다.

담력훈련팀 ‘옥상으로 따라와’는 나를 포함해 7명이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거나 중간놀이, 점심시간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머리를 맞댔다. 캠프 당일까지 친

구들을 재밌게 해주기 위한 아이디어가 솟구쳤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참가자들을 위한 미션부터 귀신 분장, 소품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더 뿌듯했다. 학생인 우리가 기획했기에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더 잘 파악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레크리에이션 ‘야밤의 레레’와 미니 운동회도 마찬가지였다. 학생들은 소소한 선물까지 꼼꼼히 잘 챙겼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캠프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교감 선생님은 초등학교 학생 자치 캠프는 우리 학교가 처음이라고 하셨다. 나는 괜히 더 뿌듯했다.

우리는 과학실로 가서 저녁밥을 했다. 선생님들도 곁에서 도움을 주셨다. 든든하게 저녁밥을 먹고 미니 운동회에 참여했다. 선생님께서도 합세해 분위기가 뜨거웠다. 승부를 의식해 혹시 누군가 다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한 담력훈련 ‘옥



캠프 담력훈련팀

상으로 따라와’가 장식했다. 학교가 킁킁해졌다. 갑자기 화면에 귀신이 나타났다! 오싹한 배경음악도 깔렸다. 친구들이 꽤 놀란 기색이었다. 예상대로야! 흐뭇했다. 기세를 얻은 나는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담력훈련에 대해 설명한 후 지도와 미션지를 나누어 주었다. ‘뒤는 곳곳에서 분장한 채 대기 중인 우리 팀원들에게 맡긴다잉~’

“까악” “엄마야!” “아놔!” 두 달간의 우리 노력이 빛나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화들짝 놀랄 때마다 우리는 “아싸”를 외쳤다. 자신은 있었지만 재미없을까봐 걱정했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집중해주었

다. 마지막 팀 체험까지 끝나자 우리도 함께 다리가 후들거렸다. 긴장이 풀렸기 때문이다. 우리 진짜 잘한 거 같아. 서로 수고했다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밖은 이미 한밤중, 캄캄했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였다. 매일 다니는 학교였지만 밤에 보니 새로웠다. 선생님들이 치킨을 쏘셨다. 마침 배가 고파왔는데..., 선생님 최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아까운 시간이 자꾸 흐르고 잠 잘 시간이 가까웠다. 우리는 강당에 텐트를 쳤다. 불은 꺼졌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밤새 속닥거렸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아침, 기상 노래가 흐르고 비몽사몽 텐트를 정리했다. 주변을 청소하고 나니 캠프가 끝났다는 것이 실감났다. 우리가 기획하고 우리가 실행한 큰 행사가 성공해서 다행이다. 오늘 캠프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우리 힘으로 치렀으니까.

나한이
화원초 6학년



전남교육신문 독자참여 와글와글

교복, 전자기기, 화장, 두발 ... 학교 생활규정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광양제철고 재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자사고인지라 엄격, 전자기기 등은 엄격하나 이번에 교복 조항을 풀고 생활복을 허락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되, 교육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세영 (카카오톡)

전자기기는 좋은 면도 있지만, 쓰다보면 자꾸 유튜브 같은 것을 보게 되요.
- 수지 (카카오톡)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전남 학생들이 되길.
- 차차 (카카오톡)

두발이나 화장의 자유를 빼앗는 것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익한 (페이스북)

몸에 딱 붙어 불편한 교복,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화장품은 엄마 입장에서 반대예요.
- 류미숙 (카카오톡)

우리들의 행복한 학교



영암 장천초 1학년, “겉기 후 먹는 간식이 꿀맛이에요” (사진 정경)

학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신문에 실리면 원고료를 드립니다. ▶ 접수 카카오톡 전남교육

사진으로 보는 11월 14일 수능날

“걱정마, 잘 될거야”

11월 14일 아침 남악고등학교, 엄마는 교문 앞에서 딸을 껴안았습니다. 툭툭, 툭툭, 툭툭, 엄마가 등을 토닥이는 동안 딸의 눈가가 축축해집니다. “다녀올게요.” 딸이 손을 흔들며 교문으로 몸을 돌리자 기다리고 있던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곁에선 학교 후배들이 응원가를 부르며 온몸으로 “선배 힘내세요”를 외칩니다. 학생의 입가에 기쁨과 부끄러움이 교차합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보고 와.” 선생님은 초콜릿을 학생의 손에 껴안아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표 하나 찍기 위해 사는지 모른다
... 비문도 미문도
결국 한 번은 찍어야 할 마지막이 있는 것,
다음 문장은 그 뜨거운 심연부터다*1)

2020 수능. 이제 겨우 마침표 하나 찍었습니다. 무수한 다음 문장을 쓸 준비가 되었다는 알림이기도 합니다. 마침표를 찍읍시다.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2)

1) 황규관 '마침표 하나'
2) 이대흠 '마침표를 먼저 찍다' 참고



1 선배님 파이팅을 외치러 온 목포헤인여고 학생들. “영광 있으리라, 헤인에~♪”
2 교실 안, 수험생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며 고요히 시험을 기다렸습니다.
3 응원은 담을 넘기도 합니다.
4 “잘 다녀와”
5 수험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잘 될거야”라고 합니다. 영암교육지원청이 응원왔네요.



독자퀴즈

요즘 이곳 '트렌드'는 책 출간!

전교생이 책을 낸 삼기초등학교와 '시인 할매', '그림책 작가' 어른들이 사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힌트_뽕시 중헌디)

정답 보내실 곳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전남교육을 검색하세요)

10월호 정답 엘로 카펫
정답자 에스더일파걸, 남미현, 박미진 승용맘, CHOYEONOK, 도은건우엄마

선정된 분들은 카카오톡(전남교육)으로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전남교육
12월 주요일정

- 3일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운영계획 설명회 | 전남여성가족재단
- 5일 2019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성과나눔 한마당 | 보성청소년수련원
- 5-6일 별과 함께 감성치유 여행 | 국립청소년우주센터
- 6일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TF 협의 | 전남도교육청 중회의실 I
2019 전문직학습공동체 정책공감 콘서트 | 전남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학부모 인성교육-인문학강좌(3강) | 전남교육연구정보원
- 12일 인성교육 성과나눔 및 2020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 전남교육연구정보원
- 13일 진로진학상담교사 컨퍼런스 | 보성다비치
학교흡연예방교육활동 사례 보고회 | 보성다비치
- 13-14일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활동 나눔 페스티벌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회복적 생활교육 리더양성과정 연수 | 보성청소년수련원
- 16일 친일잔재 청산 최종 보고회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전남교육 2020 설명회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16-19일 2020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 | NEIS시스템
- 19일 학업중단예방 집중 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나눔 | 보성다비치콘도
- 20일 회복적 생활교육 발전방향 포럼 | 나주 시티호텔
- 21일 곡성군,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의 날 | 곡성군청
- 21-22일 곰사다리학교 교사 및 대학생 멘토 역량강화 연수 | 보성청소년수련원